

'좋은 책' 위한 출판환경 감시

간행물윤리상 수상 YMCA 강남지회 '출판물모니터클럽'



“모니터활동을 통한 유해출판물 억제책도 필요하겠지만, 양서출판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출판풍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회원 이정숙씨(왼쪽), 김규인씨(오른쪽).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정한모)가 출판윤리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제1회 '간행물 윤리상'의 공로부문 수상자로 서울 YMCA 강남지회 '출판물모니터클럽'이 선정됐다.

청소년 대상의 도서·잡지·만화 등에 대한 그동안의 매체감시와 선도활동의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 10월 12일 이상의 첫 수상이라는 기쁨을 차지한 '출판물모니터클럽'이 창립된 것은 1987년 11월의 일.

창립 당시엔 도서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출판등록자율화로 매체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면서 명칭을 바꿔 재출발한 이 모임의 이번 수상은, 구성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평범한 시민들의 모임인 출판물모니터클럽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고정회원 10여명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출판물들의 유해성을 검토·토론한 뒤 해당사나 관련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일을 4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고정회원의 대부분이 주부들로 운영기간 동안 수없는 회원들의 '들락거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데, '장수 회원'도 여럿 된다.

설립회원이기도 한 이정숙씨(38)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담긴 유해출판물이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것을 보다 못해 참여

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사실 명예와 돈에 상관없이 봉사활동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먹기'가 쉽진 않았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는 “간행물 윤리상의 수상이 한동안 침체되었던 모임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다.

그의 말마따나 이들의 활동은 일없는 주부들의 '시간 떼우기'도 '순취운' 일도 아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의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언론계의 유능한 실무자나 학자를 초빙해 모니터요원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뽀뽀한 일정만 봐도 그렇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에겐 산적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사례비는커녕 생활비에서 쪼잔 자비로 책을 구입하는 일도 허다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소간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보다는 그들만의 긍지와 보람.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집이 멀어 남다른 불편을 겪는다는 김규인씨(38)는 “적극적인 후원의 아쉬움과 해당출판사의 무반응이 의욕을 상실케 할 때도 있지만, 일부분이나마 지적 사항이 시정되는 경우의 기쁨” 또한 만만치 않다면서, 은행 로비에 잔뜩 비치된 유해출판물을 보고 담당자에게 건의해서 시정된 경험담을 들려준다.

한편으로, 이 모임의 실질적인 업무진행을 맡고 있는 김각진씨(24)에 따르면, 요즘 전화

받기가 여간 고통스럽지 않다고.

“얼마전 영화광고를 모니터해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부분의 시정을 촉구했더니, 영화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항의의 정도를 지나쳐 나중엔 또 그러면 '재미없다'는 식의 협박을 하더군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그릇된 의식 구조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김씨에 의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고발상담실의 고발 건수는 4년동안 고작 42건에 불과하다. 이 중의 70% 이상이 개설초기에 접수된 것으로,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김각진씨는, 가장 유해성이 심각한 잡지류와 더불어 요즘들어 스포츠 신문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 분석한다.

또한 선정성만큼이나 심각해진 과소비조장의 문제도 출판물모니터클럽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출판물의 역기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바람은 일부 물지각한 출판인들의 자성에 있다.

“유해출판물의 억제책도 필요하겠지만, 양서출판을 유도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의 병행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올바른 출판풍토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수한 기사를 선정해 '선정패'를 전달하는 행사와 함께 뺄 수 없는 연례행사로, 오는 10월 22일부터 5일간 500여점의 도서를 선보일 '양서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회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최태원 기자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추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기간 : 11월 10일
무료공개특강 : 11월 10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깨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